

# 전주發 드론축구, 국제 경기종목 채택

### 국제항공연맹 주최 국제대회서 시범경기 종목으로 참여 가능... 2025년 전주 드론월드컵 개최 추진동력 장차

국제항공스포츠의 피파(국제축구연맹)로 불리는 국제항공연맹(FAI)이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를 국제 경기종목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가깝게는 오는 2025 전주 드론월드컵 개최에 청신호가 켜지고, 향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올림픽에서도 드론축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전주시는 최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항공연맹(FAI) 모험항공기위원회(CIAM) 국제회의에서 '드론축구 규정'이 채택되면서 향후 항공스포츠 국제대회에서 드론축구를 개최할 수 있는 시범경기 종목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드론축구 규정은 그간 (사)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제정하고

보완한 규정이다.

드론축구가 국제항공연맹(FAI)의 항공스포츠 시범종목으로 공인을 받게 되면서 시가 전락적으로 추진해 온 '2025 전주 드론월드컵 개최'를 위한 추진동력을 장착하는 것은 물론, 드론축구 관련 국제경기가 전주시가 만든 틀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전주는 명실상부한 드론축구 종주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사)대한드론축구협회(협회장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국제 경기종목 채택에 따라 향후 한국모험항공협회의 드론축구 활성화 MOU를 체결하고, 한국모험항공협회 내 '드론축구 분과'를 신설키로 했다. 드론축구 대회 관련 협의는 (사)대한드론축구협회가 맡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국제항공연맹(FAI)이

주최하는 '드래이싱 마스터즈대회'가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드론축구도 공식 국제 시범경기로서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는 향후 전국드론축구대회와 해외 선수단 초청 경기, 국제 시범경기 개최 등을 통해 전국 조직망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국의 선수단과 지부를 확장 설립하는 등 드론축구 세계화를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공모사업'에 선정돼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국내 첫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그간 11차례의 전국드론축구대회 개최와 12회의 시연 및 체험 행사를 전개하는 등 드론축구 보급에도 힘써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 16개지부에서

169개 선수단이 창단됐으며,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사)대한드론축구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는 향후 드론축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국제항공연맹(FAI)이 드론축구를 국제 항공스포츠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한 것은 그동안 전주시가 드론축구를 글로벌 스포츠 종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자, 세계화를 위한 한걸음 더 나아가 "오는 2025년 전주 드론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등 드론축구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 특례시 지정 '힘 모아'

### 전주 자원봉사단체, 중앙시장 일원서 가두캠페인

전주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이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를 비롯한 8개 자원봉사단체는 15일 전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전주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사)새마을전주지회(이사장 장성원), 전주시여성지원회 동센터(회장 김영순),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주부월),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회장 정은영) △행복한가게(회장 김남규), 원불교 전주구원공회(회장 안현숙) △전북상록봉사단(회장 김용주) 등 8개 단체의 임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8개 봉사단체는 또 회원 420여명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26일간 △전북대학교 구정문 △홍플러스 효자점 앞 △롯데마트 송천점 앞 △세이브존 앞 △안골사거리 등 다중집합장소 5곳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서명부스를 운영하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자원봉사단체들은 가두서명 운동과 함께 단체 회원 300여명이 상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청과 구청, 도청, 법원 민원실 등 주요 관공서와 전북대학교 병원, 전주대학교 병원 등 기관 7개소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은 전주시자원봉사단체 회원과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주도의 서명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황의욱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해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자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5월초까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옥마을 질서 확립 결의

15일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에서 한옥마을 질서 확립 자정결의 대회가 실시된 가운데 한옥마을 비비 공동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원 모텔서 지인

### 살해 혐의 50대 구속

전북 남원 모텔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살해 혐의로 A모(54)씨에 대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남원시내 한 모텔에서 B모(44·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주변에 다량의 혈흔 등이 발견돼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 동승한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 전주동물원, 관람객 대상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

전주동물원을 찾은 관람객들도 전북발전을 이끌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동물원(원장 조동주)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동물원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총 13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동물원 직원들은 동물원 내 시민공원 기념석 앞과 동물원 입구 주변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더 큰 전주! 전주 특례시로 한걸음 더!'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주

특례시 지정 서명 동참을 적극 홍보했다.

그 결과 타 지역에서 온 관람객을 포함한 1300여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광역시 없는 전주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서명에 동참했다.

조동주 전주동물원장은 "전주동물원을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외지 관람객에게 전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전주 이미지에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이런 분위기가 전주 특례시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2000만원 임금 체불 군산 공시장 타워크레인서 농성

군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 1명이 밀린 임금 지급을 두고 고공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경 군산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쫓겨온 소속 인부가 임금 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25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 인부는 "지난해부터 2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못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인부들도 임금체불을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현장에는 원청과 하도급 업체 측, 인부 측이 협의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주변에 에어매트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인부에게 내려올 것을 당부했다. /강석훈 기자

## 진안 한 양계장서 화재

### 3억9000여만원 재산피해

전북 진안군 한 양계장서 불이 나서 수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8분경 진안군 마령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양계장 1동 1300여㎡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3억 9천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 '학력위조' 4선 군산시의원 '집유'

### 1심서 2년 선고

학력을 위조한 전북 군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해당 의원이 4선의 중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중수(62·더불어민주당) 군산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이 학력을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위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미지 파일을 경찰에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

은 방법으로 대학교를 입학·졸업 무효인 학력을 이용해 대학원에 입학했다"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지인의 고교 졸업증명서에서 인적사항만을 자신의 것으로 위조한 새 졸업증명서를 만들기라도 하는 등 경위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원으로서 더욱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할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기만하고자 문서를 위조·행사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시의원이 학력을 위조해 유권자를 속인것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은 사전·사후 한 번도 당내에서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회박한 공적의식"이라며 "공개사과와 의원사퇴·제명만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강석훈 기자

## '제자·동료 성추행' 전주 사립대 교수 혐의 부인

### 첫 공판서...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후에 열려

제자들의 '미투(MeToo)'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모 사립대 한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모(62)교수는 15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교수는 2014년 2월 자신의 차량에 같은 대학 강사 B씨를 태워 강제로 임박함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 C씨를 불러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총 4명을 추행한 혐의

로 A교수를 수사했으나,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2건에 그쳤다.

A씨의 성추행 의혹은 제자들이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2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한편 전주대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3월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고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강석훈 기자

## 완주서 25t 트레일러 전도

전북 완주에서 추돌 사고로 대형 트레일러가 전도됐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완주군 상곡면 신리 삼거리에서 A모(33)씨가 운전한 25t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B(57)씨의 SUV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달리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 전북대병원 새마을금고 발전후원금 1억원 쾌척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병원 새마을금고에서 병원발전과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발전후원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달식은 조남천 병원장과 이승욱 기획조정실장, 황승배 진료정보실장 등 병원 관계자와 새마을금고 이경열 전북지역본부장, 최지능 전주·완주 지도본부장, 이희자 전무 등 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관 지하1층에 있는 병원 새마을금고는 직원은 물론 내방객들에게 금융 편의와 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병원 새마을금고 이희자 전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노력하고 있는 전북대병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병원 발전을 통해 지역으로 수준이 더 높아지고 더 나아가 전북도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 탄소산업 현장학습공간 자리매김

### 탄소융합기술원, 올 1분기에만 240여명 방문객 다녀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방운혁, 이하 기술원)이 국가전략산업인 탄소산업 배후를 이루려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현장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술원은 탄소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탄소기술을 체험·견학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만 총 24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는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대학생, 공무원, 기업인, 정치권 등 총 1160여명이 기술원을 방문했다.

기술원은 올해 전북대학교 창업캠프를 시작으로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전주대학교 등의 탄소교육 방문객을 유치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면서 기술원이 탄소국제교류의 장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1일에는 일본의 기타큐슈 공업고등전문학교와 아카시 공업고등전문학교의 학생 22명이 기술원을 방문했으며, 지난 9일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으로 탈레시아 중앙정부의 서기관급 공무원들이 기술원을 방문해 전주시의 탄소산업

정책과 국내의 탄소기술 현황을 배우기도 했다.

탈레시아는 마히티리 총리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일환으로 1984년부터 올해까지 35년간 총 1,600여명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시키고 있으며, 기술원 방문은 2015년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

기술원을 방문한 탈레시아 공무원들은 기술원의 재직자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해 탄소소재의 원료 및 응용분야,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창업보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탄소산업에 대한 지속적인이고 꾸준한 지원정책이 유지되어 온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기술원은 중고생들의 현장학습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는 기술원을 찾는 방문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기술원 견학 신청은 기술원 홈페이지(www.ktechre.kr)의 '견학신청안내' 메뉴를 참고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063-219-3690)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심의대상 4만3597호

전주시는 15일 각종 조세부와 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대상은 지난해보다 130호 증가한 4만3,597호로 이날 위원들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산정 여부와 주택특성조사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주택특성조사

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감증을 실시한 후 소유주들에게 21일간 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기간을 운영해왔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송효철 기자